

# ‘땅속 다이아몬드’ 트러플 인공재배 연구 한창

### 전남산림자원연구소, 국내 20여곳 자생 확인 자생 수종 활용 집중묘 생산·실증 재배 방침

전남지역에서 ‘땅속의 다이아몬드’로 불리는 트러플 인공재배가 한창이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29일 “국내 최초로 트러플(사양송로버섯) 인공재배 연구에 착수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트러플이 여러 곳에서 발견됨에 따라 집중묘 생산을 통한 인공재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러플은 땅속의 다이아몬드라 불릴 만큼 귀하고 특이한 향미를 가진 고급버섯으로 캐비어, 프아그라와 함께 세계 3대 진미 중 하나로 꼽힌다. 트러플 인공재배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R&D) 공모에 선정돼 지

난해부터 5년간 10억원의 정부출연금 지원받아 산·학·연 공동으로 하고 있다. 전남지역 산림버섯 재배농가의 미래 소득작목 발굴로 임가 소득 증대 및 버섯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산림자원연구소가 주관 기관으로 오찬진 산림바이오과장이 연구팀을 총괄한다. 협동 연구기관은 국내 균근성버섯 연구 분야 권위자인 한국교원대학교 엄안홍 교수팀, 한국농수산대 서건식 교수팀,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김경재 박사팀이다.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NGS)을 활용

해 국내 산림 토양에서 서식하는 트러플 균주를 과학적 기법으로 찾아내고 균 분리를 통해 자생 수종 활용 집중묘 생산 연구와 현장 실증 재배 시험을 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전남지역을 포함해 국내 20여곳에서 자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부근 기주식물 뿌리를 DNA 분석 등을 통해 정밀 진단한 결과, 외생균근 형태로 5종의 트러플균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도 밝혀냈다. 이어 자생지역을 대상으로 트러플 발생 시기인 8-11월 자체 발생 유무를 확

정한 결과, 세계 신종(가칭 Tuber koreanum) 1종을 포함해 총 3종의 트러플 자실체를 찾아냈다. 이 트러플의 형태적 특성 및 발생 양상에 대해 한국균학회지 등 국내 학술지에 논문 3편을 게재하고 포스터논문 5편을 발표했다. 또한 발견한 트러플 자실체를 활용해 자생 수종인 상수리 등 참나무류의 집중묘 생산에 성공, 현재 지속해서 순화재배 관리 중이며 실증 재배시험을 할 예정이다. 김현석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 연구사는 “국내에서도 트러플이 자생하고 있는

것을 밝혀낸 만큼 연구에 속도를 내 인공재배 성공을 위한 독자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트러플은 송이버섯과 유사하게 살아있는 나무뿌리와 공생하는 균근성 버섯이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에 분포해 있고 뉴질랜드, 호주, 미국에서도 인공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운남성 일대가 주요 생산지다. 한국과 일본에서 발견되기는 했지만 아직 생산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트러플 생산량은 1천100만이며 중국이 780만으로 70%, 유럽지역은 200만으로 18%를 차지하고 있다. 가격은 유럽산이 1천500원/g, 중국산이 500원/g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품질에 따라 가격차가 크다. /김재정기자

## 청년4-H회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앞장

### 벽화 그리기 등 재능기부 실시

전남도4-H연합회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최근 영암군 백양마을에서 벽화 그리기 등 재능기부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박홍재 전남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해 전남 청년4-H회원 20여명이 참여해 재능 기부로 벽화 그리기, 마을 진입로 예초 작업, 폐농자재 분리수거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전남도4-H연합회는 올해 17개 시·군 26개 마을을 우선 선정해 700여명의 회원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전남도 역점사업인 ‘청정전남, 블루 이코노미’ 실현과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지난 추석 명절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향으로 내려오지 못한 추석 귀성객들을 대신해 추석맞이 무연고 별초, 마을 공동묘지 주변 정리 등 봉사활동을 전개해 호평받았다.

박홍재 전남농업기술원장은 “청년4-H회원들이 전남도 역점사업인 으뜸마을 만들기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청년들이 지역을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앞으로도 지·덕·노·



전남도4-H연합회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최근 영암군 백양마을에서 벽화 그리기 등 재능기부를 실시했다. <전남도농업기술원 제공>

체 이념을 바탕으로 농촌공동체를 지키고 농촌을 발전시키는 데 중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4-H연합회는 114개회 5천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 청년4-H회는 21개회 854명이 미래 농업과 지

역사회 발전을 위해 선진과학 영농기술 실천과 농촌일손 돕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재정기자

## 전남도, 내년 어촌뉴딜300 공모 총력

### 13개 시·군 66곳 해수부 신청...3년간 82곳 전국 최다

전남도는 29일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2022년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도내 13개 연안 시·군 66개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군 별로 여수 10개소, 신안 14개소, 고흥 12개소, 완도 7개소, 진도 5개소, 무안 5개소, 해남 4개소 등이며 사업비는 개소 당 평균 100억원이다.

전남도는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최다 선정돼 사업비 7천633억원(국비 5천343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년간 전국 250개소 중 전남이 82개소로 33%를 차지했다.

특히 신안 만재항은 어촌뉴딜300 사업 전국 첫 준공지로 목포에서 뱃길로 3시간 30분을 단축하는 성과를 냈다.

여객선 집안시설을 개선, 그동안 여객선으로 섬에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종선(작은배)으로 옮겨 타야 했던 위험과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섬 주민의 1일 생활권 시대를 열었다.

전남은 전국에서 어촌·어항이 가장 많은 수산업·어촌 중심지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다. 그러나 대부분 오지에 있고 개발 여력이 부족해 어촌뉴딜 공모 사업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크다.

전남도는 공모사업을 위해 각 신청 마을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전문가 자문

을 수차례 실시하고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준비했다.

공모사업 평가는 10월 서류·발표 평가, 10-11월 현장 평가를 거쳐 해양수산부에서 12월 초 50개소를 최종 선정한다.

김충남 전남도 해양수산정책과장은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이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의 관심과 수요가 늘고 있다”며 “전남의 여건 상 절실한 만큼 많은 사업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 “농업박물관서 가을 들녘 수확 체험하세요”

### 내달 1-2일 첫 수확의례 올벼심니·전통 벼베기

전남도농업박물관은 대풍을 이룬 가을 들녘에서 전통 방식으로 벼를 수확하고 탈곡하는 체험 행사와 첫 수확 감사의례인 올벼심니 재현 행사를 개최한다. 수확 체험 행사는 오는 10월 2일 농업박물관 농업테마공원 전통모내기 체험장에서 진행한다.

벼를 낮으로 직접 벼 뒤 개상·홀태·그네·풍구 등 다양한 재래 농기구를 사용해 전통 방식으로 탈곡까지 하는 체험 행사다.

또 풍물패 ‘갯돌’이 농부의 수고와 수확의 기쁨을 주제로 흥겨운 마당극을 공연한다.

이에 앞서 농업박물관은 10월 1일 쌀문화관 광장에서 코로나19 종식 기원을 위한 올벼심니(뜻바심) 재현 행사도 준

비했다. 잊혀져 가는 전통 농경문화 올벼심니는 그 해 처음 수확한 벼를 찢은 쌀로 밥을 지어 가장 먼저 조상에게 ‘올벼(일찍된 벼)로 심래(마음의 예)를 올린다’는 뜻을 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침체된 사회·경제적 분위기를 반영해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는 산상분화(山上焚火) 제례도 함께 할 예정이다.

임영호 농업박물관장은 “가을 수확철을 맞아 추수감사의례인 올벼심니 재현과 수확 체험을 통해 올해 수확의 기쁨을 관람객과 나누고 싶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온 국민이 편안한 일상생활을 하는 날이 오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 도, 김장철 절임배추 수요 선제 대응

### 위생·품질 강화, 수요처 발굴 등 판매 확대 주력

전남도는 29일 “절임배추 수요가 가장 많은 김장철을 앞두고 ‘절임배추 판매 확대 대책’을 세워 선제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장 배추 최대 주산지인 전남도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가격 하락 우려 등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고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중국산 김치의 ‘알몸 절임영양’ 파문과 식중독균 검출로 소비자의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에 대한 대응책이다.

전남도는 도내 절임배추 생산자 1천36곳을 대상으로 10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시한 절임배추 위생관리 요령 등을 교육한다.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절임배추에 대한 ‘전남지사 품질인증’을 현재 7곳에서 60여곳으로 확대한다.

비대면 판매 활성화를 위해 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jmall.kr)에 절임배추 생산업체 제품 입점을 현재 37개에서 100여개까지 늘릴 방침이다. 김장철 성수기인 11월 남도장터(jmall.kr)를 통해 최대 30% 할인하는 절임배추 특관행사도 추진한다.

대규모 수요처 발굴에도 나선다. 김치가공공장과 절임배추를 대량 사용하는 김치 제조업체, 전문 유통업체 등과 사전 구매 협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장철에 ‘김치나눔행사’를 추진하는 비영리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판촉활동도 펼친다. /김재정기자

www.kjdaily.com

##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8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